



보건복지부

보도참고자료

배 포 일	2021. 6. 30. / (총 1매)	담당부서	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
과 장	심 은 혜	전 화	044-202-1720
담 당 자	박 은 경		044-202-1721

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체계 일주일 간 유지

- 중앙재난대책본부(본부장 : 국무총리 김부겸, 이하 중대본)는 오늘(6.30) 논의에서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 하되, 단계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, 지자체별로 이행기간 동안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 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.
- 이후 서울시에서 금일(6.30)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,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왔습니다.
 - 경기도, 인천시 등도 상황을 공유받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 - 이에 따라 수도권은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, 유흥시설 집합 금지, 노래연습장, 식당·카페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 현재의 조치를 1주일간 유지할 예정입니다.
- 중대본도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여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하는 바이며,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.